

협 회 통 정

장관 초청 업계간담회 개최

宋언종 체신부장관을 초청한 정보통신업계 조찬간담회가 지난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개최됐다.

협회가 민관의 유기적인 결속과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신부장관을 초청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단체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회원업체대표 등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 상견례에 이어 격의없는 대화가 있었다.

宋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지역 정보화사업을 전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 수요에 맞춰 정보통신단말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S/W나 DB등 장기적인 투자와 출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 오던 사업분야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주도로 정보통신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힌宋장관은 민간사업자들의 구심체인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해서도 협회가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宋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들 주도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추구하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민주화와 개방화시대에도 알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속도와 성패의 관건이 되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결속과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신부장관을 초청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정보통신사업 환경조성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와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건의내용과 체신부장관의 답변내용은 '지상중계'란 참조).

DB산업특위 운영위원회의 개최

협회사하 DB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扈영진 한국경제신문사장)가 지난달 3일 협회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동 위원회는 '91년도 사업방향 검토와 자문위원 위촉, DB실무추진단 구성 등 현안과제들을 논의하고, DB산업 실태조사와 DB서비스이용 실태조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선품질과 회선사용제도 등 DB관련 각종 제도상의 불합리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전력을 모으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 : 남기재 금성정보통신 이사, 이원부 동국대학교수, 이윤 한국증권전산 상무, 정문성 현대전자산업 이사, 조이남 금융결제원 부장, 최호현 금성정보통신 부장

DB목록작성 기초작업에 착수

협회는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DB목록을 작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말 세부계획 수립, 이를 추진해 오는 가운데 최근 설문지 작성과 조사요원 교육에 이어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태파악을 위한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협회는 체신부 정보통신국의 '91년도 업무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1단계로 DB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업체와 기관 260개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와 기관의 사업내용과 시설내용, DB구축 방법등을 조사해 오는 7월까지 DB목록을 작성, 발간할 예정이다.

또 협회는 향후 이를 계속 보강, 국내 DB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용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DB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 실태조사 실시

협회는 통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사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

료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정부계획과 연계, 최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협회가 체신부 정보통신국과 공동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내 정보통신사업체 및 기관 160개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사업내용과 운영현황, 투자 및 매출규모, 장단기사업계획,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오는 7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 설명회 개최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 '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협회가 체신부 통신정책국 주관하에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 국장 등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

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제도정비 방향과 법규 개정안의 골격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한

李 국장은 “보다 적합한 법규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민간 사업자의 의견수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법규 개정안은 “정보통신안테나”란 참조).



이날 법규개정안 설명회는 민간업계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EDI관련 국제회의 참관단 파견

협회는 EDI연구협의회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7일간 미 Orlando시에서 개최된 ASC X12/DISA EDI '91회의 및 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했다.

협회가 해외 EDI관련 기술 및 시장정보 조사와 국제활동

을 위해 EDI연구협의회 분과 위원회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참관단을 구성, 파견한 이번 Orlando회의에서는 세션별로 세미나와 전시회가 열려 EDI 표준과 동향 등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윤병흠(한국통신), 박준홍(〃), 이운용(〃), 김이현

(동양전자통신), 권재석(삼성 데이터시스템), 김성곤(대우 정보시스템), 이영숙(포스데이타), 강명호(〃), 김송국(동진정보통신), 김군재(한국데이터통신), 황인선(정보통신진흥협회)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 수원시민회관에서 개최

협회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원시민회관에서 “정보화사회 자유토론광장” 행사를 개최한다.

협회가 정보문화 확산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책 당국자를 비롯, 이분야의 지역인사들이 나와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토론이 있게 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6월 제주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근 홍보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현지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문제 등 구체 작업에 들어갔다.